

목포 바다과학관에서 4D 애니메이션 만나다

〈참조기·참돔·참홍어의 모험〉

영상콘텐츠 지원사업 선정

내달부터 제작...12월 상영

목포 어린이 바다과학관에서 바다를 주제로 한 4D 애니메이션이 상영된다.

목포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입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3억6000만원)를 지원받아 이번에 ‘4D 입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하는 ‘4D 입체 애니메이션’의 제목은 ‘참참참 바다삼총사

의 대모험’으로 목포바다의 대표어종인 참조기, 참돔, 참홍어가 심해에서 위기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 먼 바다로 모험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최근 애니메이션 트렌드인 뮤지컬적 요소가 가미된 ‘4D 어드벤처형 뮤직 애니메이션’을 표방했다.

시는 5월 제작에 들어가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목포 어린이 바다과학관과 자연사 박물관 4D 영상관에서 상영하게 된다.

목포 어린이 바다과학관은 삼학도 근린공원내 7130㎡ 부지, 연건평 3515㎡, 지상 3층 규모로 지난해 2월

개관했다.

“바다를 테마로 하는 바다 상상물, 깊은바다, 중간바다, 얇은바다, 바다아이돌 등 5개의 주요전시공간으로 구성됐다.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교감할 수 있는 32개 체험물을 전시해 바다에 대한 과학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복합적 과학문화 공간이다.

개관 이후 지금까지 47만명이 방문했으며,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과 함께 삼학도의 명품 관광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 어린이 바다과학관 전시물을 보고 있는 어린이들.



김으로 만든 벌·달...

최근 원도 국제 해조류박람회장내 해양문화존을 찾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내맘대로 김 만들기’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 만들기 체험은 사각형이 아닌 허트, 별, 달, 글자, 각종 도형 모양으로 자유롭게 김을 뜨는 프로그램이다.

/원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

해남군, 종자 소독 운동 전개

친환경·병해충 예방 목적

범씨 30% 줄이기도 진행

해남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친환경 재배와 병해충 예방을 위한 ‘종자 소독과 범씨 파종량 30% 줄이기 운동’을 전개한다.

이에 따라 군 농업기술센터는 범씨로 전염되는 키다리병 등을 예방

하기 위해 오는 5월 20일까지 읍·면별도 지도반을 편성하고 현장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친환경 재배농가에서는 온탕 소독 방법인 60도의 물에 10분간, 65도에서 7분간 온탕소독을 하고, 이때 물의 양은 종자량의 10~20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바로 냉수에 담그고 발아작업을 실시해야 된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신안군,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소각·휴연·입산금지도

신안군은 입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오는 6월 30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15개 단속반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취약지 감시원 등이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진행된다.

단속기간 동안 산리소유자의 동의 없이 고사리 등 산나물과 산약초를 채취하거나 전문적으로 산나물을 채취하면 적발된다.

또 군은 산리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 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문의(061-240-8456).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무안군보건소 ‘찾아가는 한방서비스’

지역 경로당 대상 침·뜸 등

무안군 보건소가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의학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역 노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보건소는 한의학 건강증진 우선사업 일환으로 공중보건 의사와 동신대 한의학과 교수를 초빙해 골관절 질환 처치 및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주 1회씩 총 12주 동안 진행되는 골관절 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은 사상체질 분류와 기공 체조, 한의약 식

이, 한의약 양생법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침과 뜬을 이용한 한방처치와 개인별 체질에 맞는 건강양생법 교육을 통해 관절과 근육을 강화시켜 질환을 예방하는 등 맞춤형 한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의학 중풍 예방교육과 면역기능 관리, 정신보건 관리교육 등을 운영해 노인이 질환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전북

정읍시 드림스타트,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평가...5번째

정읍시 드림스타트가 보건복지부 주관의 2013년도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 2007년 우수상, 2009년 최우수상, 2010년 감사패 수상, 2012년 우수상에 이은 5번째 수상이다.

이번 평가는 지난 3월 한 달간 전국 106개 드림스타트를 대상으로 6개 분야 13개 영역 총 36개 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됐다.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던 기존의 평가 방법과는 달리 이번 평가는 지역유형별로 세분화한 격년 평가제를 새로 도입했다.

정읍시 드림스타트는 이번 평가에서 대상자들의 욕구에 부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전 영역에 걸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드림스타트는 지난해 238가구 368명에 대한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건강·보육·복지 등 3개 분야에 걸친 36개 프로그램을 운영, 총 2만 3129명이 이용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시 드림스타트는 수성동 지역 시범사업을 거쳐 저소득 가구가 많은 곳을 우선순위로 순차적으로 지역을 확대해 지난해까지 연지와 초산, 농소, 시기, 내장상, 장평, 상교동 8개 동 지역에 전면 실시했다. 올해는 정읍시 전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드림 스타트사업은 기초생활수급가정의 0~12세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아동의 공평한 양육조건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군, ‘힐링산업’ 거점 조성 추진

사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산림 테라피·힐링빌리지 등

순창군이 ‘힐링(치유) 산업’ 거점 조성에 발벗고 나섰다.

순창군은 최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교수와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ICT(정보통신기술) 양·한방 힐링(힐링+웰빙) 빌리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순창의 다양한 자원과 의료, 식품, 문화, 관광, ICT가 융합된 힐링거점 조성사업 실현을 위한 객관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한 추진전략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사업은 ▲순창 강천산과 인

계면 건강장수 연구소를 연결하는 산림 치유공간 마련을 위한 ‘산림 테라피 로드’ 조성 ▲건강증진을 위한 ICT 시설을 갖추고 치유와 웰빙을 추구하는 ICT힐링 빌리지 조성 ▲통합의학 의료시설과 온천수 치료시설 등을 갖추고 힐링단지 구역을 관리 운영하는 힐링센터 조성 등이다.

군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해 분야별 사업관련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 사업예산 확보와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앞으로 체류형 힐링체험 공간을 확보해 만성질환을 치유·예방하는 ‘순창형 힐링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만개한 철쭉꽃으로 붉게 물든 지리산 바라봉 일원.

〈자료사진〉

남원시 바라봉 철쭉은 만개했는데...

세월호 참사로 행사 취소

‘철쭉제’는 산신제만 치뤄

전국 최대규모의 철쭉 군락지인 지리산 바라봉(해발 1165m)이 연분홍빛 옷으로 갈아입고 있다.

남원시는 “이달 말 산허리 하단부에서부터 시작된 철쭉이 5월 10~20일경이면 바라봉 정상부까지 만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20회째인 바라봉 철쭉제(4월 26~5월 26일)는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모든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산신제만 간소하게 치렀다.

올해 바라봉 철쭉은 기온 상승으로 예년보다 일찍 피었다. 바라봉을 중심으로 세갈산까지 3~4km 구간을 군락을 이루고 있는 철쭉은 보통 4월 말부터 시작해 한 달 내내 장관을 이룬다. 특히 해발 500m에서 정상까지 시차를 두고 개화가 이뤄진다.

바라봉 등산코스는 ▲제1코스: 허브밸리 주차장~바라봉~팔랑치(왕복 3시간) ▲제2코스: 산덕마을~팔랑치~바라봉~허브밸리(4시간) ▲제3코스: 전북학생교육원~세갈산~부운치~팔랑치~바라봉~허브밸리(5시간) ▲중주코스: 정령치~고리봉~세갈산~팔랑치~바라봉~허브밸리(6~7시간) 등 4개 코스로 나뉜다. 문의(063-620-3818) /남원=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학생 교육 추진

환경정화·공모전 개최 등

고창군이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학생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청을 받은 결과 총 19개(초등 10, 중등 4, 고등 5) 학교가 신청했다.

군은 오는 10월까지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한 이해와 5개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장체험 활동과 환경정화, 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학생들에게 지역의 우수 자원 생태환경과 문화의 다양성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는 국내외 학생교류 활동을 통해 청소년 인성 함양 및 폭넓은 사고력 향상을 위해 유네스코 학교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향후 ‘유네스코 학교’로 가입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창=윤영희기자 cy0370@

단신

전주 여성일하기센터 ‘도전 희망잡기’ 참가자 모집

전주 여성 새로일하기센터(관장 임경진)는 5월 12~16일 진행되는 제9기 ‘도전! 희망잡(job)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도전! 희망잡기’는 경력단절 여성 및 취업을 앞둔 여성 10~15명을 대상으로 월~금요일 매일 4시간씩(주 20시간) 개인별 심층 구직상담과 취

업지원을 진행하는 심층 직업상담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나의 강점 및 가치관 탐색하기, 성격유형 검사를 통한 자기분석 및 이해, 취업업을 위한 준비와 경력개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문의(063-232-2346)

/전주·부안=김철수기자 knews@

정읍시, ‘지자체 농촌 재능나눔 활동지원’ 사업 선정

정읍시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농촌 재능나눔 활동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국비는 재료비와 교통비, 식비 등 재능 나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된다.

시는 전북 과학대와 연계해 농촌마을을 직접 찾아가 건강·보건, 문해 및 문화 그리기, 예술치료 공연, 이·미용 봉사 등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재능나눔 참여 확대와 ‘함께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되는 비유로 사용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비유로 사용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비유로 사용된다.”

시는 전북 과학대와 연계해 농촌마을을 직접 찾아가 건강·보건, 문해 및 문화 그리기, 예술치료 공연, 이·미용 봉사 등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재능나눔 참여 확대와 ‘함께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되는 비유로 사용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비유로 사용된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갈색날개매미충’ 방제 당부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는 최근 과수농가들에게 외래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 방제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10년께 우리나라에 유입된 ‘갈색날개매미충’은 복숭아와 배, 블루베리, 산수유, 감 과수원에 피해를 주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약충 방제적기는 4월 하순에서 5월 하순까지, 성충은 8월 하순에서 10월 중순”이라며 “지나 겨울에 추위가 심하지않은 탓에 올해도 피해가 우려돼 복숭아와 배 과원 303ha에 지원방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약충 방제적기는 4월 하순에서 5월 하순까지, 성충은 8월 하순에서 10월 중순”이라며 “지나 겨울에 추위가 심하지않은 탓에 올해도 피해가 우려돼 복숭아와 배 과원 303ha에 지원방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순창군, 새내기 공무원 ‘2IN1 멘토링제’ 결연식

순창군은 지난 29일 신규·임용 1년 미만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2IN1 멘토링제’ 결연식을 가졌다.

‘2IN1 멘토링제’는 기존의 1:1 멘토-멘티의 결연방식에서 더욱 발전시켜 멘토 2명과 멘티 1명으로 운영된다. 멘토 2명은 사회복지 업무관련 멘토 1명과 멘티의 담당업무 멘토 1

명이다. 이들 멘토는 멘티의 관련 업무와 사회복지 전반에 관련해 선배로서 경험을 나눠 주고 실무현장지식도 전해준다. 이번 결연식에는 1년 미만 공무원 3명과 든든한 멘토가 돼 줄 선배 공무원 6명이 함께 참석해 멘토-멘티 선서를 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멘토링제 결연식을 통해 신규·임용 1년 미만의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멘토 2명, 든든한 멘토가 돼 줄 선배 공무원 6명이 함께 참석해 멘토-멘티 선서를 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